



■ 김효신의 스페인 여행기

스페인, 더 멀리 저 너머로

70. 바르셀로나, 꼭 다시 돌아 올 거야

1월 17일 금요일, 새벽 2시에 잠이 깼다. 왜 이렇게 일찍 잠이 깬는지 잠시 어리둥절했는데 곧 정신이 들었다. 어제 몬세라트에서 돌아온 우리는 너무 피곤해서 저녁식사도 거르고 호텔로 돌아왔다. 나는 씻지도 않고 옷을 입은 채 침대 위에 누워 버렸는데 R이 다리를 주물러주던 기억이 난다. 내 위에는 R의 얼룩말 코트가 덮여 있었다. 그대로 잠든 엄마를 흔들며 깨우지 않고 곤히 자게 내버려둔 딸의 배려심이 가득했다. R은 침대 속으로 들어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나는 딸의 손을 만지며 누워 있다가 다시 잠이 들어 버렸다.

새벽 5시 30분 기상. 뜨거운 물에 샤워를 하고 발코니에 나가 새벽 바르셀로나를 내려다본다. 아직 깜깜한데 몇몇 부지런한 자동차들이 새벽 거리를 달려가고 있었다. 오늘 바르셀로나를 떠난다. 너무 짧은 시간이었지만 즐겁고 행복하긴 했다. 낮에는 햇빛이 가득하고 밤에는 습기를 머금은 바닷바람이 불어 몸이 편안했고, 활기에 찬 동시에 느긋한 도시의 분위기 때문에 마음도 편했다. 천재 건축가 가우디의 고향에 와서 그의 놀라운 작품들을 직접 본 것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고, 까탈루냐 영산 몬세라트의 여운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었다. 안녕, 바르셀로나. 꼭 다시 돌아올 거야.

R도 일어나 준비를 하고 우리는 짐을 챙겼다. 오늘 우리는 포르투갈로 향한다.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은 다음 기회에 가보기로 하고 이번 여행은 남은 일정을 포르투갈 제2도시 포르토에서 마칠 예정이었다. 짐을 다 싣 후 R은 배가 고파 찢쩍했다. 어젯밤 엄마가 훑아 떨어지는 바람에 바르셀로나 마지막 밤에 저녁도 못 먹고 자야 했기 때문이다. 미니 바에 넣어 놓았던 요거트로 우선 허기를 달랜다. 계속, 그리고 무척 미안했다.

이른아침 호텔 로비에는 아무도 없었다. 코너 호텔은 로비가 참 멋있어서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기분이 좋았다. 체크아웃을 하고 로비 이곳저곳을 마지막으로 둘러 보았다. 락

시는 호텔 바로 앞에 여러 대가 대기 중이어서 바로 탈 수 있었다. 공항까지 가는 길에 동이 터오는 바르셀로나 거리를 마음에 새기면서 간다. 두 가지 인상적인 점. 우선 바르셀로나에는 어디로 가든 모터사이클이 항상 길에 무더기로 세워져 있는 것이 보인다. 그리고 마드리드와 마찬가지로 바르셀로나도 온 도시가 낙서로 뒤덮여 있어 너무 안타까웠다. 시정부 차원에서는 포기하고 방치하는 듯했고 건물 주인이 필요하면 자비로 지우는 것 같았다.

바르셀로나 공항은 한산했다. 터미널 2 라이언어 카운터에 가서 체크인을 했다. 카운터 직원이 '아 포르토(A Porto)?' 하면서 수속을 해 주는데 비로소 포르투갈로 향한다는 실감이 났다. 체크인을 한 다음에는 깜박 잊고 있던 세금 환불 수속도 했다. 바르셀로나에서 쇼핑을 한 금액이 꽤 되어 환불을 받기로 했다. 오늘 공항에서는 현금 환불을 못한다고 해서 주소와 신용카드 번호를 적어 봉투에 넣어 박스에 넣었다. 3일 후에 환불이 된다고 한다.

환불 수속까지 마친 후 검색을 지났다. 사람들이 많지만 스페인 검색 요원들이 서두르며 사람들을 몰아쳐서 꽤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런데 역시 여기도 아주 부산하고 곁에서 보면 큰일 난 것 같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아무 것도 아니다. 눈을 크게 뜨고 서로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들어보면 별 얘기 아닌 스페인 사람들의 대화 모습 같아 웃음이 났다.

검색을 마치고 '엔리케 토마스' 라는 하몽 샌드위치 가게에 들어가 하몽 콘 케소 샌드위치 하나와 카페 콘 테레를 주문해 아침 식사를 했다. 바게트 빵은 무지 딱딱하지만 구수하고, 하몽은 짭짤하고 맛있다. 치즈는 별로 안 짜고 부드러워 샌드위치에 잘 어울렸다. 스페인 햄 하몽의 매력은 짜지만 감칠 맛이 있고 하몽 특유의 얼은 돼지 냄새 외에는 일체의 방부제 맛이 나지 않는 것이다. 일반 햄이나 소시지에서 느끼는 방부제 맛이 전혀 없어서 신선하고 맛있다. 소금에 절인 음식이라 그런지 마치 한국 음식의 잘 삭은 맛이 나기도 한다. 하몽 샌드위치와 진한 스페인 밀크커피는 완벽한 스페인 작별 기념 식사가 되었다.

Lic. #920169 Since 2007 Insured & Bonded

지붕에 관한 모든 것 블루 크루에 맡기세요

Blue Crew

무료 견적

- 신축, ADU, Addition 지붕공사
- 태양광 관련 문의 및 자문현영
- 가정집, 아파트, 커머셜, 지붕수리 및 재시공

www.coolroofservice.net
(213) 820-3789 LA
(714) 224-8394 OC

Laura Hair 플러튼

로라 헤어

30주년 기념

BIG SALE

- 헤어컷 + 펌 + 코팅 or 컬러 **\$40^{up}**
- 남자 헤어컷 **\$10**
- 여자 헤어컷 **\$12**
- 헤어컷 + 컬러 **\$20**
- 헤어컷 + 펌 **\$30**
- 컬러 + 트리트먼트* (탈모방지) **\$30**
- 특수펌 **\$40** (상하고 약한 모발을 건강안 모발로)

예약 전화 **714-900-9607**

너무나 쉬운 주택대출

Non-QM Home Loans

세금보고서 필요없습니다
 बैं크 스테이트먼트로 충분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 적극 추천합니다

- 3 백만 불까지 용자 가능
- LTV 90% 까지/PMI 없음
- 투자용 부동산 85% 캐시 아웃
- 최소한 서류로 2-4 주 내에 클로징
- 외국 국적 고객 환영
- 주택구입, 재융자, 캐시아웃, 투자용 대출 상담 환영

David R. Kim
 Private Client Group - NonQM Loans
 Direct (714)790-6581 Mobile (949)690-0189 NMLS #1693713
 Email: david.kim@tunited.net 17341 Irvine Blvd Tustin CA 92780

W-2

Tax Returns

PMI

Hard Money

구입

재융자

캐시아웃

투자